

개정
증보

제주어사전

濟州語辭典

제주특별자치도

사람이야.) [전역] = 군웅, 궁홍.
 구녕-다리 ㉮ 성질이 음침하고 흉악한 사람. [전역] = 군웅-다리, 궁홍-다리.
 구녕-부리다 ㉮ 음침하고 흉악한 성질을 부리다. *아방 었넨 구녕부리지. 말양 어멍 말 잘 들엄시라.(아버지 없다고 궁홍부리지 말고 어머니 말 잘 듣고 있어.) [전역] = 궁홍-부리다.
 구덕 ㉮ <도> 바구니. *요즘은 구덕도 있지만 그땐 멩텅이 줄아 가지고서 동냥을 하면서 빌어 먹었어.(요즘은 바구니도 있지만 먹동구미를 걸어 가지고서 동냥을 하면서 빌어 먹었어.) *(속) 구쟁기닥살 까먹으나 안 까먹으나 혼 구덕.(소라껍질 까먹으나 안 까먹으나 한 바구니.) [전역] 구덕-삼승 ㉮ <민> 아기구덕을 보호하는 삼신. [전역]
 구덕-혼스 ㉮ 유아기 때 부모끼리 약속한 혼사(婚事). [전역]
 구덩이 ㉮ [전역] → 구뎡이.
 구뎡이 ㉮ 구덩이. [전역] = 구뎡이.
 구두리-악(九斗里岳) ㉮ <지> [전역] → 구두리-오름.
 구두리-오름 ㉮ <지>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의 경계에 있는 오름. 표고 517미터. [전역] = 구두리-악(九斗里岳), 구두-악(狗頭岳).
 구두-악(狗頭岳) ㉮ <지> [전역] → 구두리-오름.
 구두에기 ㉮ <동> 구더기. *영동에 빨레하민 구두에기 인텐 흐메.(음력 2월에 빨레하면 구더기 인다고 하

지.) [전역]
 구둑 ㉮ [전역] → 몬지.
 구둑-받이 ㉮ <도> [노형 조수 남원] → 쓰레-박.
 구들 ㉮ <진> 구들. ① '방구들'의 준말. [전역] ② 사람이 거쳐하기 위하여 구들을 놓고 불을 때게 만든 칸(間). [전역]
 구들-구들 ㉮ 물고기가 잡힌 지 얼마 안 되어 싱싱한 모양. [전역]
 구들-놓다 ㉮ 방-놓다. [전역]
 구들-돌 ㉮ 구들-장. [전역]
 구들-바닥 ㉮ 구들-바닥. 자리를 깔지 아니한 맨구들의 바닥. [전역]
 구들-셋문 ㉮ <진> [가시] → 지계-문.
 구름비 ㉮ [성산] → 구름비.
 구름비-낭 ㉮ <식> [성산] → 구름비-낭.
 구렁 ㉮ 구렁. 땅이 움푹하게 팬 곳. [전역] = 골-흙, 구렁, 굴³, 굴렁, 굴렁지, 굴렁이, 굴헿.
 구렁곳-개 ㉮ <지> 제주시 건입동 동대머들 북쪽 '구렁곳' 가까이에 있었던 포구. [전역]
 구렁-대 ㉮ [서흥 수산 가시 김녕] → 구리-대.
 구렁-몰 ㉮ <동> 구렁-말. [전역]
 구렁이 ㉮ <동> [전역] → 구렁이.
 구렁-적대물 ㉮ <동> [태흥 표선 수산 세화 조천] → 구렁-적대물.
 구렁-적대물 ㉮ <동> 구렁-말. 털 빛 깔이 밤색인 말. [조수 인성 화순] = 구렁-적대물.
 구렁이 ㉮ <동> 구렁이. [전역] = 구렁이.

구렁 ㉮ [표선] → 고렁.
 구름 ㉮ 구름(雲). [전역] = 구름¹.
 구름비 ㉮ 까마귀쪽나무의 열매. [전역] = 구름비, 구름비.
 구름비-낭 ㉮ <식> 까마귀-쪽나무. [인성 서흥 태흥 수산 표선 세화] = 구름비-낭, 구름폐기, 구름푸기, 구름비-낭, 구린폐기, 부름-폐기.
 구름폐기 ㉮ <식> [전역] → 구름비-낭.
 구름푸기 ㉮ <식> [인성 조수] → 구름비-낭.
 구렁 ㉮ [전역] → 구렁.
 구름¹ ㉮ [전역] → 구름.
 구름² ㉮ <지> [아라] → 구-오름.
 구름비 ㉮ [전역] → 구름비.
 구름비-낭 ㉮ <식> [전역] → 구름비-낭.
 구리다¹ ㉮ 구리다. 동냄새 따위와 같은 냄새가 나다. [전역]
 구리다² ㉮ 속이 들떠서 비어 있다. [전역]
 구리-대 ㉮ 구릿-대. [조수 인성 노형] = 구렁-대, 수리-대².
 구리-췌 ㉮ [전역] → 구리-췌.
 구리-췌 ㉮ 구리(銅). [전역] = 구리-췌.
 구린-내 ㉮ 구린-내. *장 고려신가? 무사 영 구린내 남시니?(장이 고렸나? 왜 이리 구린내가 나니?) [전역] = 꾸렁-내.
 구린-질 ㉮ 움푹하게 패인 길. [전역]
 구린폐기 ㉮ <식> [전역] → 구름비-낭.
 구마리 ㉮ 발-목. 다리와 발이 이어지는 관절 부위. *이젠 구마리 아팡 걷지 못헿키여.(이제는 발목이 아파서 걷지 못헿겠어.) [전역] = 귀마리.

구마리-광 ㉮ 복사-뻘. [노형 조수 김녕] = 귀마리-광, 장귀-뻘. (고귀머리.
 구머릿-동네 ㉮ <지>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의 한 자연마을. [애월] = 구몰니-동, 구몰-동, 구머릿-동네.
 구멍 ㉮ [전역] → 고망.
 구멍 ㉮ 장마가 진 때에 평지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곳. [인성 서흥 수산] = 구멍.
 구멍 ㉮ [인성 조수 서흥] → 구멍.
 구멍-논 ㉮ <농> 장마 때에만 물이 솟아오르는 자리에 마련한 논. [전입]
 구몰니-동(龜沒泥洞) ㉮ <지> [애월] → 구머릿-동네.
 구몰-동(龜沒洞) ㉮ <지> [애월] → 구머릿-동네.
 구물 ㉮ 그물(網). [전역]
 구물다 ㉮ ① 그 달의 날짜가 마지막 날에 가까워지다. 그물다(晦). [전역] ② 그 해가 거의 세월에 가까워지다. [전역] ㉮ 그물다.
 구물-코 ㉮ 그물-코(網-). [전역]
 구뎡 ㉮ 그뎡(晦). [전역] ㉮ 그뎡.
 구뎡-날 ㉮ 그뎡-날. [전역]
 구뎡-돌 ㉮ 그뎡-달. [전역]
 구뎡쟁이 ㉮ <동> 능성어. [사계]
 구미 ㉮ 별빛이나 불빛이 아주 가리어지지 않고 틈으로 비치는 듯하는 곳. [전역]
 구미(口味) ㉮ 구미. [전역] = 귀미.
 구미-악(狗尾岳) ㉮ <지> [전역] → 갯거리-오름².
 구머릿-동네 ㉮ <지> [애월] → 구머릿-동네.
 구박-구박 ㉮ 그저 시키는 대로 고스

개정본 제주어사전
濟州語辭典

2009년 11월 15일 인쇄
2009년 12월 1일 발행

발행: 제주특별자치도
편집: 제주문화예술재단
인쇄: 일신옵셋인쇄사
제주시 이도2동 1927번지
전화 064) 758-1500

ISBN 978-89-962572-5-7 01710
<비매품>

※ 이 『제주어사전』의 모든 내용은
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.
무단 복제를 금합니다.